

칼럼

장기채 주필



임을 위한...5월의 노래

언제나 그랬듯이 지금까지도 5월이면 우리들의 마음을 저절하게 움켜쥔다.

그것은 5·18이 생각나기 때문일 것이다.

피투성이의 아버규현이 뇌리를 스친다. 주먹밥이 생각나고, 헌혈을 하겠다고 팔을 걷어 부치고, 줄을 서던 그런 모습도 떠오른다. 민주·인권·평화를 위해 군사독재 정권에 맞서 분연히 일어섰던 80년 5월 그날이 39년을 맞았다.

5월 그리고 18일 이라는 숫자는 해마다 다시 오지만 광주의 5·18은 이 땅에 진정한 민주주의가 그 숭고한 뜻을 기려야 한다. 그 뉘를 위로해야 한다.

더 나아가 5월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디딤하는 그런 날이어야 한다. 또 5월의 노래는 해마다 5월이 오면 빛고을을 물들였다. 이제 다시 5월이다. 5월은 5월의 노래 가 있다.

광주의 한 단칸방에서 카세트 녹음기로 만들어진 노래 테이프는 수없이 복제돼 방방곡곡으로 전해

졌다. 광주 대학살의 폐해감과 자괴감, 하지만 새날에의 희망을 버릴 수 없던 산자들은 숨죽이며 노래를 불렀다.

노래에서 힘을 얻고 서로 어깨를 걸었다. 노래는 노동현장에서, 산업현장에서, 거리에서, 대학가에서, 새날을 향한 씨울의 현장에서 '깨어나서 외치는 함성'으로 되살아났다.

'그 해' 광주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산하에간 영령을 기억하고 숭고한 뜻을 이어가겠다는 맹세의 노래였다.

80년대 민주화 정의의 초석을 이룬 5·18민주항쟁의 역사와 정신이 오롯이 깃들어 있는 노래, 입을 위한 행진곡이다. 5·18민주화운동 39주년 기념식을 앞두고 이미 주모 분위기는 고조되었다.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

주묘지에 5월 영령을 기리기 위한 추모객의 발길이 이어졌다.

우리 사회의 민주화는 4·19혁명, 그리고 5·18민주화운동을 거쳐 1987년 6월 민중항쟁으로 그

꽃을 피웠다.

지금 우리 사회가 누리는 민주주의는 5월 광주에서의 의로운 희생을 바탕으로 열매를 맺은 것이다.

돌아보면 5·18민주화운동은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기념비적 사건이다.

관련 기록물이 201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오를 만큼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한국 민주화운동의 시작이다.

그런데도 최근의 극단적 표현과 흉포한 행동이 날로 증폭되는 것 같아 섭뜩한 지경이다. 이제 정부와 여당은 물론 보수 진영도 5·18을 왜곡·폄훼하는 극단적 언행을 방관하는 태도를 보여서도 안된다.

단호한 대처를 통해 더 이상의 국론 분열과 갈등을 막고 국민대통합의 길로 나가야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

좋은 계절이다. 오월은 '계절의 여왕'이라 했다.

청자(青賚)빛 하늘 / 육모정

탑 위에 그린 듯이 곱고 / 연못
창포잎에 / 여인네 맵시위에 / 감
미로운 첫 여름이 흐른다 / 라일
락 숲에 / 내 꽃은 꿈이 나비처럼
앉은 정오(正午) / 계절의 여황
오월의 푸른 여신 앞에 / 내가 웬
일로 무색하고 외롭구나 / 밀물
처럼 가슴 속으로 몰려드는 향수
를 / 어찌하는 수 없어 / 눈은 먼
데 하늘을 본다.

노천명의 시 '푸른 오월'이다.
신천은 연두색에서 점점 녹색으로
비뀐다. 그리고 진녹색으로 변하여
싱그러움을 더한다.

오월은 개구쟁이들에게는 어린
이날, 부모님께는 어버이날, 선생
님들께는 스승의 날, 소중한 행사
들이 소복소복 쌓여있다.

모두가 시끌벅적 마음은 들뜨
게 될 것이다.

이제는 5·18희생자 유족 등 평
생의 힘을 앓고 살아가는 관련자
들의 상처를 해집는 일이 있어서
는 안된다.

5월의 푸른이 영원히듯 광주정
신은 결코 퇴색되지 않고 역사속
에서 더욱 푸르게 빛날 것이다.
그렇다 모두가 5월의 노래를 부를
때 진정어린 '국민행복'의 길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제 모든 것을 새롭게 대하고
다시 시작해 보자. 아름다운 꽃을
보듯이 세상을 반기며 보듬어 보
자. 그윽한 향기, 소중한 인연, 언
제나 변함없이 오월의 세상을 향
해 축복의 노래를 마음껏 불러보
자!

그러다 보면 행복의 꽃들이 살
그머니 우리 곁에 찾아와 향기로
운 꽃 내음을 피울 것이다.

社說

고령 운전자 대책 서둘러야

경남 통도사에서 고령 운전자가 사망 사고를 냈다는 소식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고령의 운전자가 가속 폐달을

실수로 밟은 것이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의학 검사 기간 단축' 등 고령 운전자를 관리하는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고령운전자 사고는 증가 추세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자에 의한 사고는 2013년 1만7590건에서 2017년에는 2만6713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고령 운전자는 신체 특성상 도
보 이동이 어렵고 운전으로 생계
를 꾸려가는 경우도 많아 강제적
으로 운전을 못하게 하기는 어렵다.

단순히 나이에 의해 운전 가능
여부를 따질 게 아니라 개인의
특성에 따라 세부적으로 운전 가
능 여부를 검사해 제재를 해야한
다. 검사자가 고령운전자 옆에 타

서 검사를 하고, 필요하면 의사에
게 의학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대상이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 3년으로 통일돼 있는
갱신·적성 기간을 개인의 특성을
고려해 각기 달리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고령운전자가 '운전면
허'를 포기할 경우 주는 혜택을
늘려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택시
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고령
운전자들에게도 아동 편의성을 제
공하면서 자연스럽게 운전을 안하
게 유도해야 하는 방안마련이 필
요할 것이다.

정부는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버스나 지하철 뿐 아니라 택시를
이용할 때 혜택을 준다든지, 의료
기관이나 복지기관을 방문할 때도
편의를 제공해주는 등 운전을 못
하는데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字文

樓觀飛驚

觀
飛
驚大
中
大觀
觀
觀中
中
中飛
飛
飛驚
驚
驚大
中
大觀
觀
觀中
中
中飛
飛
飛驚
驚
驚大
中
大觀
觀
觀中
中
中飛
飛
飛驚
驚
驚大
中
大觀
觀
觀中
中
中飛
飛
飛驚
驚
驚大
中
大觀
觀
觀中
中
中飛
飛
飛驚
驚
驚大
中
大觀
觀
觀中
中
中飛
飛
飛驚
驚
驚大
中
大觀
觀
觀中
中
中飛
飛
飛驚
驚
驚大
中
大觀
觀
觀中
中
中飛
飛
飛驚
驚
驚大
中
大觀
觀
觀中
中
中飛
飛
飛驚
驚
驚大
中
大觀
觀
觀中
中
中飛
飛
飛驚
驚
驚大
中
大觀
觀
觀中
中
中飛
飛
飛驚
驚
驚大
中
大觀
觀
觀中
中
中飛
飛
飛驚
驚
驚大
中
大觀
觀
觀中
中
中飛
飛
飛驚
驚
驚大
中
大觀
觀
觀中
中
中飛
飛
飛驚
驚
驚大
中
大觀
觀
觀中
中
中飛
飛
飛驚
驚
驚大
中
大觀
觀
觀中
中
中飛
飛
飛驚
驚
驚大
中
大觀
觀
觀中
中
中飛
飛
飛驚
驚
驚大
中
大觀
觀
觀中
中
中飛
飛
飛驚
驚
驚大
中
大觀
觀
觀中
中
中飛
飛
飛驚
驚
驚大
中
大觀
觀
觀中
中
中飛
飛
飛驚
驚
驚大
中
大觀
觀
觀中
中
中飛
飛
飛驚
驚
驚